

# 高速社會 속의 病理現象

韓 相 震

〈서울大學校 教授·社會博〉

## 高速社會란 ?

高速社會란? 문자 그대로 변동의 속도가 매우 빠른 사회를 가리킨다. 한 예로, 불과 10년 전의 서울 강남지역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강남지역을 살펴본다면 그동안 변동의 속도가 가히 어느 정도였는가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꾸준히 계속된 변동의 결과들이 누적되어 10여년이 지난 오늘날 옛모습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도시가 창조된 것이다. 高速社會란 이처럼, 고속버스가 고속도로를 질주해 가듯이, 급히 변동해가는 사회를 지칭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변동이라고 부르는 것에 여러가지 종류와 차원들이 있기 마련이고 또 그 質에도 차이가 많다. 고층건물이 올라가고 자동차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과 같이 육안으로 보이는 변동이 있는가 하면, 전통적인 생활규범들이 파괴되거나 해체되는 것과 같은, 비교적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정신상의 변동도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기독교 신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종교적 차원의 변동이겠지만, 지난 20여년(1961—1981)에 걸쳐 국민총생산량이 30.1배, 1인당 국민소득은 20배나 증가하고, 수출고는 무려 519.7배, 수입고는 82.7배나 증가했다는 것은 경제적 차원의 변동에 속한다. 여기서 이미 암시되는 바와 같이, 어떤 변동은 그 質에 있어서 可視的이고 물

질적인 반면, 다른 변동은 보다 정신적이기 때문에 量化시키기가 꽤 어려운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高速社會의 일차적 특징은 무어니 무어니 해도 外觀으로 확인될 수 있는 면의 급속한 변동일 것이다.

이에 관해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경제성장에 관한 것이다. 지난 20여년에 걸쳐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보여준 고도성장률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 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실로 기복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인 연도가 허다한 가운데 연평균 8.4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고용구조도 크게 확대되어 절대 빈곤인구가 1965년의 41%에서 1980년엔 10%로 줄어 들었고, 1인당 국민소득의 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중진국의 수준에 오르게 되었다.

경제성장에 못지 않게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도시화의 급속한 진행이다. 해방당시에는 전체 인구의 13%를 수용하는 것에 불과했던 도시인구가 1955년에는 24.5%로 증가하였고, 이것이 1975년에는 48.4%로 급상승하거나 1980년에는 드디어 57.3%로서 농촌인구를 상회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문화적 제반 시설과 편익들이 더욱 도시에서 편중하게 되고, 도시적인 생활조건과 양식들이 급속히 확대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산업구조의 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산업별 고용구조의 면에서 제 1차산업의 비중은 1963년에 63.9%나 되었으나 1979년에는 불과 36.6%

로 감소되는데 반해, 제조업분야의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에 8.0%에서 22.9%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의 산업별 국민총생산의 구성을 보면, 1차산업의 비중은 44.8%에서 21.9%로 감소한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14.5%에서 27.2%로 증가하였다. 한편 경공업과 중공업의 구성을 검토해보면, 경공업의 비중이 1963년에는 70.3%나 되었으나 1979년에는 45.2%로 줄어든 반면,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같은 기간에 54.8%로 신장되었다.

이와같은 몇가지의 간단한 통계지수들만 보아도 高速社會란 여러 면에서 눈부신 성장의 기록들을 보여주는 동태적인 사회임이 분명해진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왜냐하면 근대화라고 하는 밝은 표면의 뒤에는 항상 이에 못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경제성장과 이것을 수반하는 변동들의 의도치 않았던 파급효과로서, 우려할 만한 사회 문제들이 또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不均衡의 發展으로 부터 나오는 사회적 긴장과 모순 및 병리현상들에 대해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상식적으로 볼 때, 不均衡은 우선 두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하다. 하나는 可視的 성격의 것으로서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것과 같은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현상이다. 즉, 비교적 物量的으로 표현될 수 있는 차원의 불균형이다. 다른 하나는 이와 반대로 보다 정신적인 성격의 것으로서 이 不均衡은 물질적 차원의 성장과 정신적 가치의 발전이 심한 괴리를 보일때 드러나는 현상이다. 편의상 우리는 前者를 可視的 次元의 不均衡으로, 後者를 정신적 황폐화의 문제로 다룬다 하더라도 무방할 것처럼 보인다.

### 可視的 次元의 不均衡

사회발전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루어 지지 못하고 어떤 부문은 고도로 근대화 되는데 반해 다른 부문은 그렇지 못해 절대적으로 혹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버릴 때, 그리하여 그 결과

가 눈에 띄게 드러날 때 우리는 不均衡의 發展을 논의할 근거를 얻게 된다. 이 현상이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되는 것은 근대화된 영역과 낙후된 영역사이의 구조적 단절이 꽤 심각해서, 이것이 사회전체의 발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이다.

예컨대 주택, 시설, 수입 및 소비유형에 있어서 대도시의 일부집단들은 고도로 근대화된, 혹은 더 나아가 국제화된 행동구조를 지니고 있음에 반해 다른 어떤 집단들은 근대화의 대열에서 낙오되어 여러가지 면에서 빈곤의 악순환을 경험한다면 이것은 명백히 不均衡의 發展의 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민경제가 주로 대기업위주로 발전해 가는데 있어서, 대기업은 주로 해외시장을 겨냥한 수출정책에 충실하고 그 결과로 인해 民生의 안정과 복지에 관한 내수산업이 부진해 진다면 이것 역시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이라 말할 수 있다.

可視的 不均衡의 단적인 예들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바와 같이 농촌과 도시의 불균형, 계층과 계층사이의 불균형, 지역과 지역사이의 불균형 등으로 나타난다.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경제성장의 혜택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었다든지, 도시의 중산층이 이 혜택의 주요 몫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쉽게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성장의 엔진과 이것의 과실을 배분하는 논리가 매우 선택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국민대중이 다같이 근대화의 대열에 동참한다기 보다는 어떤 계층들은 이것의 주요 흐름들로부터 배제되거나 그 가장자리에 위치하게 될 뿐임을 암시한다. 이 결과는 국민대중의 생활유형에 심각한 단절을 초래하는 것이다. 우선 경제적으로 혜택받은 층과 혜택받지 못한 층사이의 격차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도시의 고층건물과 아파트가 근대화의 한 상징이라면, 그 그늘에 가려져 있는 판자촌의 실상이 이러한 격차를 보여주는 한 충격적인 보기라 하겠다.

우리보다 훨씬 균형된 발전을 이룬, 따라서 국민경제가 훨씬 안정되어 있는 서구복지사회의

경우에는, 농촌 어디를 가나 생활수준이 도시에 비해 별로 뒤지지 않을 만큼 골고루 잘 개발되어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주택과 시설, 영양의 면에서 만이 아니라 교육과 문화활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지역별로, 영역별로, 계층별로 큰 단절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듯이 보인다.

아마도 그 단적인 예를 우리는 오늘날 어디에서 보더라도 의료보험제도를 둘러싼 理想과 現實사이의 갈등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사회보험제도의 진정한 의미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비용을 社會化 시키는데 있다. 이것은 특히 개인의 경제력이 빈약한 경우에 더욱 필요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험제도의 역사가 짧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동안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대체로 소외되었던 농어촌의 대다수 주민들과 불완전 고용상태의 근로자들이 의료보험의 혜택으로부터 빠져있는 실정이다. 이것 역시 따지고 보면 불균형적 발전이 더욱 심화되어 나타난 한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可視的 不均衡은 이러한 면들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산업부문별의 발전에 관해 보더라도 불균형은 심각한 면이 있다. 비근한 예로, 수출산업과 대기업 및 국방부문은 그동안 현저히 발전하였지만 국민대중의 건강과 복지 및 주택 등에 대한 투자는 이에 비교해 볼 때 미미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민교육에 대한 투자도 담보상태에 머물러 있어 콩나물 교실과 교사에 대한 빈약한 대우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말로는 교육이 민족중흥의 열쇠라고 하지만 경제성장일변도에 놀려 교육투자는 그동안 뒷전으로 밀려났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자의 의욕과 사기가 진작되기란 어려운 일이고, 이러한 조건위에서 국민교육이 제대로 되기 힘들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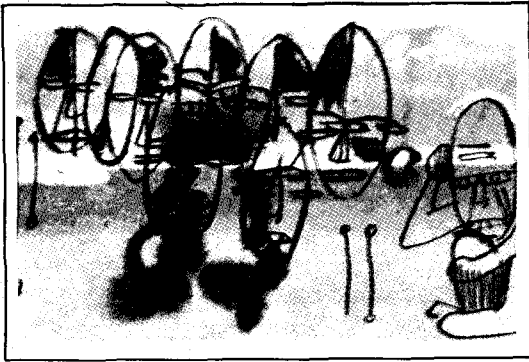
약간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지만, 도시의 아파트 단지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가혹할만큼

환경자원들이 철저히 파괴되거나 손실되었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서울만큼 사람들이 붐비는 도시도 세계에서 흔하지 않지만, 서울만큼 사람들이 부담없이 쉽게 가서 실만한 공원, 산보할만한 환경과 산책길들이 부족한 곳도 발견하기 힘들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동안 너무 物量的인 성장의 전시효과에만 치중한 나머지 生態學的인 제반 여건들이 잘 고려된 쾌적한 삶의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되는 것이다. 요즘 서울의 강남지역과 경기도 파천 등을 예로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 곳들에서의 급속한 성장에 경이를 표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정책의 실패를 거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요체는 生態學的인 인간의 삶의 조건들이 파괴되는 不均衡의 發展으로 모아질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不均衡의 發展의 제반 모습들은 우리가 經濟成長의 기본논리를 지키면서 그 안에서 성장의 과실들을 좀더 사회전체의 복지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배분함으로써 상당한 정도로 교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러한 불균형의 의미를 너무 비판적으로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으리라고 본다. 오늘날의 “선진사회”가 이 불균형의 문제를 폐극복하고 있는 것과도 같이, 우리도 서구사회의 뒤를 쫓아 선진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면 유사한 발전의 논리를 따라 불균형의 상당한 부분을 제거시킬 수 있는 것이다.

## 精神的 荒廢化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염려해야 할 문제는 高速社會의 정신적 빈곤 혹은 정신적 황폐화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는 물질적인 재화가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는 법이다. 이에 못지 않게 물질적 재화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經濟的 倫理觀이 중요하고 인간과 인간을 질서있게 결합시켜주는 규범의식도 중요하다. 그리고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사회안에서의 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시민사회의 윤리관도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서로를 不信하



기 보다는 신뢰하는 자세, 분열되기 보다는 협동하는 풍토, 그리고 서로를 오해하기 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가짐도 인간다운 사회생활을 위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들이 高速社會의 빠르고 일방적인 변동의 리듬에 쫓겨 사라져버리거나 증발되어져 버린데 정신적 빈곤의 위험이 있는듯이 보인다.

이것의 단면을 우리는 물질적 가치관의 팽배에서 찾을 수 있다. 물질적 재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치관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이 태도가 너무 극단적으로 발전하여, 모든 것들을 물질적인 척도에 의해 재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정신적 빈곤은 불가피해질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때는 인간의 개성을 존중하고, 인간됨을 중요시 여기며, 서로 신뢰하고 협동하는 정신적 가치가 설 땅이 사라지는 반면, 그 대신 약삭빠르게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부들 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풍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인간존중의 가치관이 무너지는 희생위에서 물질적 가치관이 팽배해진다면 이것은 가히 한 사회의 정신적 위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사회가 용인하고 장려하는 행동의 목적이 제대로 개발되지 못한 상태에서 수단위주의 생활태도가 변태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한동안 “황금만능주의” “한탕주의,” “일확천금주의” 등으로 불리워져 왔던 작태들은 정신적 위기가 표면으로 분출되어나오는 예들에 불과하다. 목표를 상실한 형식주의, 극심한 체면치레, 눈치작전, 요령주의 등도 같은

성격의 다른 예들일 것이다. 사회 일각에 만연되었던 부정부패, 비리, 퇴폐풍조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결부되어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점은 인간존중의 가치들이 몰락하고 물질위주의 형식적 태도들이 만연하게 되면서 인간생활에 매우 중요한 상호이해의 언어의 기능도 급속히 파괴되어 간듯이 보인다는 점이다. 물론 언어의 파괴는 매우 포괄적인 현상으로서 여러가지로 해석되고 음미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세가지의 면에 초점을 맞추어 간단히 언급하려고 한다.

하나는 언어자체가 상호이해의 삶의 방식이라기 보다는 다른 목적을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림으로써, 진정으로 믿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주 귀해진 상황을 뜻한다. “언어공해”라는 근래의 표현이 암시해 주듯이, 무수히 많은 말들이 돌아다니고는 있지만, 내용이 진실하고 의도가 신뢰할 만한 말은 아주 드물다는데 문제가 있다.

다른 하나는 조직의 상층부와 하층부 사이에 言路가 뚫려있기 보다는 막혀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사회에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긴 역사를 가진 것이겠지만, 특히 지난 20여년에 걸쳐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를 따라 여러면에서 우리 사회가 현저히 관료화되고 권위주의화 되면서 특히 심각해진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결과, 밑으로 부터의 의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합의를 창출시키는 언어의 기능은 현저히 파괴되었던 것이다.

마지막의 차원은, 마치 물이 고이면 썩듯이, 言路가 막힘으로부터 기형적인 말의 흐름과 심리상태가 사회안에 퍼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흔히 “유비통신”이라고 불리우는 유연비어가 급속히 전파되는가 하면, 매스 미디어를 통한 정부의 공식발표보다 이것에 더 귀를 기울이는 심리가 사회안에 확산된다. 뿐만 아니라, 은연중에 형성된 저항의식이 미묘한 형태로 표출되기도 한다. 한 예로, 얼마 전에 조세형씨의 탈출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반시민이 느꼈던 심리안에는 미묘한 저항심리들이 많이 표출되어 있었다고 생

각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다같이 사회저변에 미증유의 긴장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高速社會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정신적 위기는 본질적으로 볼 때, 생활세계의 파괴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종종 새로운 사회문제들의 폭발적인 증가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 한 예를 우리는 흔히 아노미, 소외, 집합적 연대성의 결여라고 불리우는 현상들의 질적인 심화와 확산에서 발견한다. 아노미란 개개인들이 목적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無規範의 상태를 가리키고, 소외란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특히 정치적인 일들에 대해 사람들이 적극 관심을 갖기 보다 무관심 하거나 냉소적이 되며 침묵을 지키는 태도가 사회안에 퍼져있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나와 나의 가족부터 우선 잘살고 보자”는 편협한 이기주의가 사회의 주된 풍조를 이루는 맥락에서 집합적 연대성이 현저히 고갈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정신적 빈곤과 방황은 흔히 충격적인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들의 경각심은 대체로 이러한 충격에 직면하여 고양되는 경향이 있다. 인간사회치고 범죄가 없는 사회란 있을 수 없지만, 생활세계의 파괴는 범죄의 규모와 수법 및 質의 면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온다. 예컨대, 전통적인 유형의 범죄는 대체로 개인적인 이해 관계에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행위의 동기를 이해 하기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이에 따른 긴장과 모순이 개인의 심리구조 안에 쌓이면서, 개인적인 이해 관계의 맥락에서 이해되기 힘든 새로운 종류의 범죄들이 나타나게 된다. 무차별적인 살인행위들이 그 예일 것이다. 말하자면, 고속사회의 정신적 빈곤이 인간의 심리안에 매우 폭발적인 그리고 병리적인 파괴에의 충동을 확산시켜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는 高速社會의 정신적 질환이 어느 인구층보다도 청소년층에게 가장 민감하게 작용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들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학교의 공식문화와 그들의 가정문화, 지역사회의 문화 그리고 청소년의 문화가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다기 보다는 어느 의미에서 서로 분열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층은 기존의 권위체제에 대한 존경을 잃고, 대중사회의 정신적 표류를 직접 흡수하고 반영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그러나 高速社會의 가장 심각한 지진아는 高速社會의 구조적 압박과 긴장으로 인해 정신적 통합을 상실한 세칭 정신병자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는 흔히 ‘정신병자’ 하면 우리와 무관한 그야말로 미쳐버린 어떤 사람을 연상하는 경향이 있으나, 어느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대부분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쳤을 때, 그리하여 自我에 의한 통합능력이 현저히 파괴되었을 때, 정신병자라는 분류가 적용되는 것이다. 高速社會는, 이것의 전개과정에 수반되는 의도치 않았던 부작용의 하나로써, 정신병자를 대량 생산해내는 병리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는 크게 두가지의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기 쉽다. 하나는 정신질환을 야기시키는 사회적 원인, 즉 긴장이 高速社會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비근한 예로, 오늘날의 대학을 보면 어느 때 보다도 대학생들 사이에서 정신적 질환이 확산되지 않고 있는가 하는 두려움을 느낀다. 다른 하나의 요인은, 다른 모든 사회문제의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통제조직의 활동이 확대됨으로써 사회문제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高速社會의 병리현상들을 근원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질적 면의 성장에 못지않게 인간존중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인간의 마음을 순화시키는 平和政策이 고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막혔던 言路를 개방시켜 진정한 대화에 입각하여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풍토를 모색하고 개선해 가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